

한국철학논집 제55집(2017.11)
한국철학사연구회

19세기 한국유학자 홍석주의 노자관 연구

— 실용주의적 학문관을 중심으로 —

김 태 용(Kim, Taeyong)

(한양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tyong69@daum.net)

- I. 들어가는 말
- II. 홍석주의 실용주의적 학문관
- III. 홍석주의 『정로』와 실용주의적 노자관
- IV. 나오는 말

<논문 요약>

홍석주는 18-19세기 한국의 정통주자학자이다. 그런데 그는 주자 후학들의 학문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주자 후학들이 논변하는 ‘이기성명의 설[理氣性命之說]’이 허학이며 공리공담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주자 후학들의 학문태도에 의리의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는 본원유학 즉 수사학으로의 복귀를 지향한다. 그에 따르면, 본원유학이 강조한 것은 실제적 이론 특히 수신과 치인에 관련된 이론이다. 『정로』에서 그는 노자가 이단은 아니고, 노자의 도가 유학의 도와 동일하며, 『도덕경』이 수기치인의 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노자는 진실한 인의예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춘추시대의 허위적 인의예지를 비판하고 부정한 것이다. 노자는 ‘어진 사람[仁者]’이고 『도덕경』은 ‘어진 덕을 베푸는 방법을 논한 책[仁術之書]’이다. 홍석주는 노자가 말한 ‘자애로움[慈]’, ‘검약함[儉]’, ‘겸손함[謙]’, ‘부쟁(不爭)’의 이론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만약 고대 중국인들이 노자의 이러한 이론을 잘 견지했다면 춘추전국이라는 국가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그는 유학자들에게 존심공부를 위해 노자가 말한 ‘치허극(致虛極), 수정독(守靜篤)’을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 홍석주는 개방적, 실제적, 실증적 학문태도의 소유자이다. 노자를 이단으로 간주하는 학술환경에서 『도덕경』을 주해한 점, 노자와 『도덕경』에 대한 관습적 이해에 대해 실증적 태도로 논박한 점, 실제성을 갖는 노자의 이론과 관념의 수용을 권고한 점 등을 볼 때, 『정로』는 홍석주의 실용주의적 학문관이 잘 반영된 저작이다.

주제어: 홍석주, 『정로』, 실용주의적 학문관, 노자, 수기치인.

I. 들어가는 말

고려 말 신홍사대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성리학(程朱學, 朱子學)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일의 지배이념으로 정립되었고, 이후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16세기 한국의 성리학은 조선시기 한국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2-1571)과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7-1584)에 의해 중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16-17세기의 왜란(倭亂, 1592-1598)과 호란(胡亂, 1627-1649) 및 이 시기를 고비로 서구의 근대 과학기술이 지입(知入)하는 상황에서 17-18세기 한국의 사상계에 이이의 무실(務實)정신을 계승하는 탈성리학적 실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자들이 경시하던 박학(博學)의 방법을 중시하였다. 박학은 심문(審問), 심사(深思), 명변(明辨) 등과 함께 본원유학에서부터 중시되어 오던 방법 중 하나였다. 당시 성리학자들이 경학(經學)에 기초한 형이상학(形而上學) 탐구에만 열중하여 학문이 비실제적 성향으로 흐르고, 실천에서는 안인(安人)을 등한시하며 수기(修己)에만 지나치게 열중하여 현실에 둔감한 것을 비판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박학을 강조하였다. 박학을 중요시한 의도는 광범위한 현실 파악의 힘을 길러 민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탈성리학적 실학자들은 경세치용(經世致用)과 이용후생(利用厚生)에 힘써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함으로써 그 학문의 실제적 실용성을 발휘하려 하였고, 여러 개혁안을 제출하였다.¹⁾

1800년 정조(正朝, 在位1777-1800)의 사망은 18세기의 끝과 19세기의 시작에 위치하였다. 19세기는 서구유럽의 세계재패가 현실화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가 크게 동요하던 시기였다. 19세기는 전근대 한국의 마지막이면서 근대 한국의 시작이었다. 19세기 정조시대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사상의 경향들이 등장하였다. 정조는 초계문신(抄啓文臣)제도와 문체반정(文體反正)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왕 스스로 문예를 관리하

1) 윤사순, 『실학의 철학적 특성』, 서울: 나남, 2008, pp.36-54.

고 주도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삼대(三代)의 이상적 군주상인 군사(君師)를 삼대 이후 최초로 실현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문예를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그 배후의 이념은 성리학이었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사상과 문예(北學, 公安派, 天主教, 西學 등)에 대한 갈구는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정조는 강력한 척사(斥邪)보다는 정학(正學)을 부흥함으로써 이단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비록 문체반정이나 천주교 박해는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새로운 사상의 경향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건한 정책들은 정조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순조(純祖, 在位1800-1834)초기 강경 일변도의 탄압 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특히 서학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이 탄압으로 한국의 학계는 전체적으로 위축되었지만, 곧 새로운 사상의 경향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9세기 성리학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상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성리학을 묵수하거나 개량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경향이었고, 둘째는 성리학의 인식론적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성리학을 공격하려는 경향이었으며, 셋째는 종교적 심성에서 성리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이였다. 첫 번째가 지배이념으로서의 성리학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성리학을 회의하고 균열하려는 시도였다.²⁾

이 글은 성리학을 묵수하거나 개량적으로 발전시켰던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1774-1842)의 『도덕경』 주해서인 『정로(訂老)』에 나타난 그의 노자관을 통해, 19세기 한국유학자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이후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한국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였다고 할 수 없다. 19세기 학술사상도 이러한 시대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19세기 근대 한국 학술사상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새로운 시대에 새

2) 조성산, 「19세기 조선의 지식인 형성-균열과 가능성」,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겨울, 2016, pp.119-121.

로운 학술사상을 구축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9세기를 근대 한국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인물의 사상이 그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는 전근대 한국의 끝이면서 동시에 근대 한국의 출발이고, 첫 번째 지식인 그룹이 사실 19세기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식인들이었다. 그러므로 홍석주의 사상은 일정 정도 19세기 중반 이전 한국 지식인의 일반적 학술경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사상과 학문관은 실용(실사, 실천)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학문관은 주로 경서나 고전 관련 그의 저술에서 표출되고 있다. 논자는 홍석주의 개방·실제·실증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학문관이 그의 노자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의 노자관과 실용주의적 학문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Ⅱ. 홍석주의 실용주의적 학문관’에서 홍석주의 경학사상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그의 학문관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정리하겠다. 이를 기초로 ‘Ⅲ. 홍석주의 『정로』와 노자관’에서 『정로』를 고찰하여 홍석주의 실용주의적 학문관이 그의 노자관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겠다. 그리고 ‘Ⅳ. 나오는 말’에서 홍석주가 속했던 첫 번째 그룹의 지식인들이 19세기 중반 이후 위정척사(衛正斥邪)파와 일부 온건한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주장과 홍석주의 실용주의적 학문관 사이의 동이(同異)에 대한 논자의 의견을 간단히 개진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도록 하겠다. 논자가 판단할 때, 역사학과 문헌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홍석주의 경학(학문관) 연구와 철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정로』(노자관)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도 일정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다. 다만 홍석주의 학문관에 입각해 『정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글은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정로』가 내포하고 있는 홍석주의 실용주의적 학문관을 발굴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하겠다.

II. 홍석주의 실용주의적 학문관

홍석주는 영조 50년(1774)에 한양에서 태어나 헌종 8년(1842) 69세로 세상을 떠났다. 자(字)는 성백(誠伯), 호(號)는 연천(淵泉),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본관이 풍산(豊山)으로 영의정을 지낸 홍낙성(洪樂性)의 손자이다. 정조 19년(1795)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는 율곡 이이와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학통을 계승한 노론(老論) 낙론(洛論) 계열의 학자로서 고문(古文)에 뛰어나 여한십대가(麗韓十大家)의 한사람으로 꼽힌다. 당대에 이미 김대순(金邁淳, 1776-1840)과 함께 ‘연대문장(演臺文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거벽(巨擘)의 정평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장(詞章)만 일삼은 학자가 아니었다. 육경(六經)을 위주로 본원유학을 깊이 연구하여 그 대원(大原)에 정통하였을 뿐 아니라, 성리학에 일가를 이루었으며 역사학에도 조예가 있었다. 그 밖에 여러 방면에 걸쳐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박학능문(博學能文)’의 대유(大儒)가 되었다. 그는 일찍이 청년시절 규장각에 재직하면서 청으로부터 수입된 각종 서적들을 섭렵하였다. 또 순조 3년과 31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신으로 청에 들어가 청의 문물을 목도하고 그곳 학자들과 교류하였다.³⁾ 그는 평생 문필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저술이 많다. 그 중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은 경사자집(經史子集) 전반에 걸친 방대한 독서량과 개별 도서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을 보여주며, 『제자정언(諸子精言)』은 유가를 제외한 춘추시대 제자 34가의 저술에서 일상생활에 귀감이 되는 구절을 일일이 뽑아서 편집한 것이다. 또한 『노자도덕경』을 주해한 『정로(訂老)』는 유학의 관점에서 노장학의 본지를 고찰한 중요한 업적이다. 이러한 저술들을 통해 홍석주는 성리학계열의 학자이면서도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졌고, 노장이나 불교를 이단의 학문이라 비판하는 한편 그 부분적인 효용성을 인정하거나 그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⁴⁾

3)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하, 서울: 심산, 2006, p.50.

홍석주는 근본적으로 주자학을 학문의 바탕으로 한다. 그는 명말 이후의 고증학자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존심과 격물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자의 가르침이다. 훈고가의 말과 같다면 치지 외에 다시 존심공부가 있지 않다. 치지를 하지 않으면 참으로 존심할 방법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보존되지 않고서 앎을 극진히 할 수 있는 경우도 아직까지 없다. 주자는 『대학혹문』을 지으면서 주경공부로 『소학』의 빠진 부분을 보충한 뒤에 비로소 격물치지에 종사하게 하려 하였다.⁵⁾

주자의 도는 만고에 드리워서 없앨 수 없다. (중략) 문인들이 모아 편집한 것 중에는 본지를 잃은 것도 있고, 세세한 경우 혹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의와 관계된 것에 이르러서는 성인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 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⁶⁾

이처럼 홍석주는 고증학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그는 독서에 있어서의 고증을 아주 무익하기만 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가 비판한 고증학은 의리(義理)와 치란(治亂)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구(字句)의 이동(異同)과 연대(年代)의 선후(先後)를 찾는 데에 평생을 바치는 당시의 고질적인 학풍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고염무(顧炎武)의 고증학을 평가하면서, “조금의 병은 있지만 그 절의와 문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라 하고, 또한 고염무와 같은 학문 태도라면 “내가 어찌 고증학을 병으로 여기겠는가.”⁷⁾라

4) 김문식, 「홍석주의 경학사상 연구」, 규장각한국학연구소, 『규장각』 16, 1994, p.32.

5) 홍석주, 『鶴岡散筆』 권2: “存心致知, 不可廢一, 朱夫子之訓也. 如訓詁家之言, 則致知之外, 不復有存心之工矣. 夫不先致知, 固不知所以存心, 然心不存而能致其知者, 亦未之有也. 朱夫子作大學或問, 欲以主敬之工補小學之闕, 而後始從事於格物致知.”

6) 홍석주, 『鶴岡散筆』 권1: “朱子之道, 垂諸萬古而不刊. (중략) 朱子著述至富, 門人所綴緝, 其細者, 容或有異同, 至大義所繫, 雖聖人復起, 不能易也.”

7) 홍석주, 『鶴岡散筆』 권1: “自是其一病, 其節義文章之卓然, 未必不反爲其所掩也.”, “吾亦何病夫考證哉.”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홍석주가 고증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의(大義)를 제쳐두고, 자구 해석과 같은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에만 치중하는 고증학을 비판한 것이다.⁸⁾ 그리고 그가 볼 때, 이러한 고증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에 존심(存心) 공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존심 공부란 구방심(求放心)이다. 구방심을 통한 존심은 곧 성찰(省察)을 통해 존양(存養)하는 주자학의 수양론이다. 그러므로 그는 주경(主敬)에 기초해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주장한 주자의 도는 만고불변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홍석주는 주자에 대해 극찬하면서도, 송유(宋儒)들의 ‘성명이기의 설〔性命理氣之說〕’ 즉 형이상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성현의 가르침은 반드시 대중들이 볼 만한데 나가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은 성인이 가벼이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성과 천도에 대해 자공도 듣지 못함을 한탄했다. (중략) 지금 송유를 추종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걸핏하면 만물의 한 근원인 성, 음양이 나누어지지 않은 태극을 말하니, 과연 누가 보고 누가 증명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송유의 말학을 하는 자들은 참으로 실천이 따르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말을 한다는 비방을 초래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⁹⁾

정자나 주자께서 계실 때에 석가나 노자의 가르침이 크게 유행했다. 그 설을 전과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성명과 이기에 대해 거칠게나마 언급할 수 있었으니, 이치에 가까운 듯한 것이 참됨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유학자들 중에 고명한 자들까지 가끔 그 학설에 빠졌으니, 정자와 주자께서 어찌 그런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중략) 가령 정자와 주자께서 요즘에 태어나셨다면 그 설교에 또한 반드시 마땅함이 있었을 것이다.¹⁰⁾

8) 리상용, 「홍석주의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 한국서지학회, 『서지학연구』 16, 1998, pp.367-368.

9) 홍석주, 『鶴岡散筆』 권1: “聖賢之訓, 必就夫衆人之所可見者, 人之所不能見者, 聖人亦未嘗輕言也. 是以性與天道, 子貢猶歎其不可聞. (중략) 今號爲能宋儒者, 動輒言萬物之一原之性, 氣質未雜之理, 陰陽未分之太極, 是果孰見而孰證之耶. 故曰, 爲宋儒之末學者, 亦固有以召空言識也.”

10) 홍석주, 『鶴岡散筆』 권1: “程朱之時, 釋老之教大行, 爲其說者, 率多能言性命理

홍석주가 볼 때, 성현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실생활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었지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이고 공소(空疏)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정자와 주자가 ‘성명’과 ‘이기’에 대해 말하였지만, 이는 불가와 도가의 이론에 맞서 유가를 변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성명이기의 설’은 성현의 학문 즉 본원유학(공맹)도 정주학(程朱學)의 정수도 아니라는 것이다.

홍석주는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노론 낙론계 학맥에서 성장하였다. 그들의 학문은 심성론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주자학의 의리학을 강조하면서도 실용, 실사의 학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¹¹⁾ 홍대용의 학문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배우는 자에게 급선무는 ‘성명이기의 설’이 아니라 ‘위기(爲己)와 ‘무실(務實)’의 공부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실사와 실용을 외면한 종래의 학풍에서 탈피하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그는 형이상적 측면에 치우친 정주학의 폐단을 시정,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수양론에서는 ‘구방심(求放心)’의 자기수양을, 학문적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실사(實事)’를 강조하였다. 이는 곧 ‘위기’와 ‘무실’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홍석주는 “학문이란 공리공담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귀하게 여기는 것(學問, 不貴空談而貴實行)”이라 말한다.

반드시 그 일을 익힌 뒤에야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오늘날 사람들은 토론하고 논변하는 것만을 학문으로 알고, 그 일을 익히는 것이 배움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적다. (중략) 쓸데없고 실행이 불가능한 이야기만하고 그것을 실행을 통해 증험해 보지 않는 자는 비록 그것이 그러한 까닭의 이치에 관해 가슴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있더라도 또한 학문이라 할 수 없다.¹²⁾

氣之糟粕, 而近理亂眞壞人心術, 吳儒之高明者, 亦往往陷溺於其中, 程朱夫子之言, 豈得已哉. (중략) 使程朱夫子, 生於今日, 其所以說教也, 亦必有其宜矣.”

1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통의 변용과 근대개혁』, 서울: 태학사, 2004, p.59.

12) 홍석주, 『鶴岡散筆』 권2: “夫必習其事而後, 可以謂之學. (중략) 人但知探討辨難之爲學, 而解能知習其事之爲學. 平居談說, 出神入妙而求其實, 則漠焉不可見, 亦無怪乎流俗詭昧也. (중략) 夫空談其所以然之理, 而未嘗驗之於實行者, 雖了然於胸中, 亦未可謂之學也.”

홍석주가 지향하는 학문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다. 그가 볼 때, 후세의 학자들이 공리공담(空理空談)만 일삼고 실사(實事)를 등한시 하는 것은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만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과 같다. 학자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공리공담을 일삼는 송유의 말학에서 벗어나 본원유학 즉 수사학(洙泗學, 공자학)으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학문태도를 취한다.

성인이 사람을 교육시킨 것은 모두 실사이다. 들을 수 있는 말이라도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성인이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다.¹³⁾

옛 사람의 가르침은 반드시 실사를 주장하며,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 인륜, 일용에 가까운 것과 부부, 부자 사이의 것을 먼저 하는데, 후세의 설교자는 심, 성, 이, 기, 도, 덕을 말하니, 그 설은 아름답고 탁연히 높으나 쓸데없고 실행이 불가능한 이야기만 하니 불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¹⁴⁾

홍석주에 따르면, 송유의 말학들이 심(心), 성(性), 이(理), 기(氣), 도(道), 덕(德) 등 실천하기 어려운 공허공담을 일삼는 것과 다르게, 공자, 맹자 등 삼대의 성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고 가깝게 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단과 유학을 구별하는 근본은 그것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그는 『중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고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륜과 일용에 벗어나지 않는 것¹⁵⁾이라 하고, “성인의 책이 평실하고 절근한 것은 『논어』 같은 것이 없다.”¹⁶⁾

13) 홍석주, 『鶴岡散筆』 권2: “夫聖人之教, 皆實事也. 言之可聽而無以證其實者, 聖人蓋罕及之也.”

14) 홍석주, 『鶴岡散筆』 권3: “古人之教, 必主乎實事, 其爲事也. 又必先乎人倫日用之近, 夫婦父子之間. 後世之說教者, 曰心曰性曰理曰氣曰道曰德, 是其說非不洋洋乎美也. 又非不卓然高也. 雖然, 懸空而說, 求其可見於行者, 未易也.”

15) 홍석주, 『鶴岡散筆』 권2: “中庸之書, 專言常道. 雖上原天命, 旁及鬼神, 若極其高遠者, 然而實不離乎人倫日用之常行也.”

16) 홍석주, 『鶴岡散筆』 권2: “聖人之書, 平實而切近者, 莫如論語.”

라 한다.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실무(實務), 실사(實事), 실용(實用) 등을 중시하는 홍석주의 태도는 그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에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실사구시’는 청조 고증학자들이 내세운 표어로서, 구체적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말로 알려져 왔다. 고증학자들은 경전 등을 연구함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무징불신(無徵不信)’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홍석주의 실사구시는 이와 성격을 달리하였다. 그의 「실사구시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필구실(事必求實), 실필구시(實必求是)’여덟 글자로 요약된다. 그는 이론만 앞세우거나 현공적(懸空的)인 사변(思辨)을 일삼는 부류들과 달리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경세(經世)의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고증학으로 야기된 경색적 학풍과 주자학의 권위적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논어』에 나타난 실천적 성격을 중시하고 육경을 중심으로 한 본원유학의 정신세계를 파고들었다.¹⁷⁾ 이처럼 그가 주장하는 실용(실사)주의적 학문관은 본원유학의 구체적 실제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Ⅲ. 홍석주의 『정로』와 실용주의적 노자관

『노자』가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7세기 때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당고조(唐高祖) 이연(李淵)이 도사를 파견하여 천존상(天尊像)을 선물하고 고구려(高句麗) 영유왕(英留王)이 직접 도사의 『노자』 강의를 들었다. 후에 당태종(唐太宗)이 영유왕의 요청으로 도사 8명을 파견하고 『노자』를 선물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다른 기록에 따르면, 백제(百濟) 근초고왕(近肖古王) 때 장군 막고해(莫古解)가 『노자』를 인용해 왕에게 진언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3세기부터 『노자』가 이미 한국에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 시기 이미 『노자』 역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선시대에 비로소 『노자』 주해서가 세상에 등장하였다. 지금

17)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하, 서울: 심산, 2006, pp.51-55.

까지 발견된 조선의 『노자』 주해서는 5종이다. 이이(李珥, 1536-1584)의 『순언(醇言)』,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신주도덕경(新注道德經)』, 서명응(徐明膺, 1716-1787)의 『도덕지귀(道德指歸)』, 이충익(李忠翊, 1741-1816)의 『담로(談老)』, 홍석주(洪錫周, 1774-1842)의 『정로(訂老)』이다. 이이와 박세당의 『노자』 주해서는 ‘이유석노(以儒釋老)’의 관점 특히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개념과 관점으로써 『노자』를 해석하였다. 그런데 18-19세기 성리학의 붕괴시기에 등장한 3종 주해서는 이전 조선유학자와 해석관점을 달리한다. 서명응은 가치론 위주의 의리학(義理學)에서 벗어나 선천학(先天學)·상수학(象數學)의 관점에서 주해하여 주자학과 결별하고, 이충익은 노자의 무위(無爲)의 관점에서 주해하여 주자학뿐만 아니라 본원유학까지 벗어난다.¹⁸⁾ 그러면 정통주자학자인 홍석주는 어떤 관점에서 『노자』를 해석하고 있을까? 그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노론 낙론계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전통을 전수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노자도덕경』 주해서인 『정로』에 국한시켜 보면, 당시 한양에서 유행하던 실학이 그의 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학자들이 성리학의 경학관을 극복하고자 새롭게 제창했던 학문정신 내지 방법론은 세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첫째 개방적 박학적 정신, 둘째 본원유학의 실제성 추구정신, 셋째 훈고학적 실증정신이 그것이다.¹⁹⁾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로』에는 이러한 실학의 학문정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먼저 홍석주는 개방적 정신, 실증적 정신을 발휘하여 “노자는 이단이 다”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비판하면서 『정로』를 시작한다.

세상에서 노자의 글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지만, 세상에서 노자에 대해 비평하는 자 가운데 아직까지 노자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중략) 일반적으로 후세에 노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노자의 본 모습이 아니다. (중략) 내가 생각하기에 노자의 본래 의미를 세상에 밝힌 다음에 성인의 말씀에

18) 김학목, 「18-19세기의 조선조 『도덕경』 주석 고찰」, 한서대학교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26권, 2013, p.200.

19) 윤사순, 『실학의 철학적 특성』, 서울: 나남, 2008, p.74.

일치하는 것은 스승으로 삼아야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논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수 이 책을 지어서 바로잡으니, 대개 노자를 바로잡는 것이 열에 하나이고, 세상에서 노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해 바로 잡는 것이 열에 아홉이라고 하겠다.²⁰⁾

노씨의 책에 대해 세상에서 모두 이단이라고 하지만 천천히 풀이해 보면서도 합치하지 않는 것은 별로 없으니, (38장)의 내용도 구별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²¹⁾

내 생각에는 (62장)의 뜻이 비천하여 노자의 말이 아닌 것 같다. 대개 선진의 서적들이 대부분 후대 사람들에게 변조되고 어지럽혀져 비록 육경(六經)일지라도 모두 이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자세히 살피면서 구분해야 한다.²²⁾

후세에 세상 사람들이 형명(刑名)이나 병법²³⁾, 음모술수 혹은 권모술수²⁴⁾, 자신의 사사로움만을 구하는 것²⁵⁾, 연단 수련이나 불사약을 구하는 것²⁶⁾을 노자와 관련시켰다. 또한 노자가 말하는 ‘무’를 석가가 말한 “공하

20) 홍석주, 『訂老』 머리글: “世以老氏, 爲異端, 固也. 然世之言老氏者, 未嘗有知老氏者也. (중략) 凡後世之所謂老者, 皆非老也. (중략) 余謂老氏之本旨, 明於世而後, 其合於聖人者可師, 而其不合者亦可辨. 於是乎爲是書以正之, 蓋正老氏者什一. 正世之不知老氏者什九云.”

21) 홍석주, 『訂老』 38장: “老氏之書, 世皆謂之異端, 然徐而繹之, 其不合于道者蓋寡, 唯此章, 不可以無辨.”

22) 홍석주, 『訂老』 62장: “愚按此章旨意淺陋, 恐非老子之言. 蓋先秦之書, 多經後人所竄亂, 雖六經, 皆不免, 此善讀者, 所宜審辨也.”

23) 홍석주, 『訂老』 머리글: “老氏以慈爲寶, 且言法令滋章, 盜賊多有, 而世或以老爲刑名. 老氏言佳兵者不祥, 而世或以黃石陰符, 合諸老.”

24) 홍석주, 『訂老』 36장: “此章所論亦有激於強奪者而云爾. 豈眞欲以陰謀勝人哉. 若夫不得其意而得其言, 則流而爲利名權術者, 亦其勢之所必至, 固不容曲爲之諱也.”

25) 홍석주, 『訂老』 7장: “然老子之意, 亦未嘗不欲人去私, 以全其天也. 或因是, 遂疑其本旨之專在於私己, 如楊氏之拔一毛利天下而不爲者, 則亦過矣.”

26) 홍석주, 『訂老』 머리글: “老氏言無以生爲者是賢於貴生, 而言修煉服食, 以求長生者, 托於老.”

여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천지 만물과 사람의 큰 도리와 법도를 모두 ‘공’이라 여기는 것으로 보고²⁷⁾, 노자의 ‘반(反)’을 불가가 말하는 윤회(輪廻), 인과(因果)와 같다 여기고²⁸⁾, 미쳐 날뛰고 거만하며 제 멋대로 욕심을 부려 방종하면서 세상의 일을 경시하는 것이 높은 절개라 여겨 난세와 망국의 화를 초래한 청담(淸談)가들이 노자의 사상에서 그 구실을 찾고²⁹⁾, 방사(方士)들이 제단을 설치하여 재를 올리거나 또는 예언서를 괴이하고 신묘하게 꾸미면서 그것은 노자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 자칭하였고³⁰⁾, 불교도나 신선방술을 하는 자들이 은연중에 출가의 설을 가지고 노자에게 갖다 붙이고³¹⁾, 노자가 말한 ‘위도일손(爲道日損)이 후세에 치양지(致良知)와 돈오(頓悟)를 학문으로 여기는 자들과 같다 하고³²⁾, 노자가 말한 ‘상제보다 앞서 있는 듯하다’는 구절은 서양 천주교에서 천주를 설하는 말과 같은 점이 있다고 여겼다³³⁾. 당시까지 유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
- 27) 홍석주, 『訂老』 12장: “承上章無之以爲用而言, 蓋老子所謂無者如此, 非若釋氏所謂空無一法者, 并與天地萬物人極之大經大法, 而盡空之也.”, 40장: “或乃引釋氏空諸所有之說, 而謂天下萬物, 皆泡影假合, 則非老子之本意矣.”
- 28) 홍석주, 『訂老』 30장: “聖人之言禍福報應, 止於其著者耳. 如蘇氏之說, 亦巧矣, 然有足以警世也, 故取之, 蓋老氏之意, 亦如是而已, 非有如浮屠氏所謂輪回因果也.”
- 29) 홍석주, 『訂老』 머리글: “老氏言治, 以民復孝慈爲上, 其書言治國愛民者居半, 而違親遺君, 絕俗以爲高者, 歸於老. 老氏言致虛守靜, 自勝者強, 是克己也. 言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 慎終如是, 是小心也. 其言謙退卑弱者又不一, 而猖狂倨傲, 恣慾而無憚者, 藉口於老.”, 63장: “此章專言審幾慎微之道, 蓋老子所謂無爲無事者如此. 與夫後世淸談之士, 猖狂簡傲, 以遺落世事爲高, 而馴致亂亡之禍者, 相去若霄壤矣.”
- 30) 홍석주, 『訂老』 머리글: “老氏言以道治天下者, 其鬼不神, 而修齋醮, 飾符籙, 以語怪神者, 亦自號爲老.”, 33장: “但其用功之要, 則必自寡欲克己始, 而持之以不怠而已. 非有所謂服食祈醮. 役使神怪之說, 如後世方士之所假托者, 此讀老氏者, 所宜先辨也.”
- 31) 홍석주, 『訂老』 19장: “然與夫釋家者流, 絕倫常捐骨肉以爲道者, 不可同日語也. 後世爲神仙方士之學者, 乃或陰取彼出家之說, 以附於老氏, 其亦誤矣.”
- 32) 홍석주, 『訂老』 48장: “老子以爲學爲道, 歧而二之, 雖非吾儒之旨, 然知爲學之日益, 而亦未嘗以學爲可廢也. 與夫後世之以致良知頓悟爲學者, 亦異矣.”

노자를 비판해왔다. 그런데 홍석주가 볼 때, 그들은 노자의 뜻을 왜곡한 것이지 노자의 진면목을 본 것이 아니다. 또한 『노자』는 육경 및 선진의 전적들과 마찬가지로 후세에 변조 및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교감이 필요하다. 그는 논변을 통해 노자의 본래 의미를 밝히고, 만약 그 가운데 (유가의) 성인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가 볼 때, 노자의 설은 그 중 유학의 설에서 벗어나는 10분의 1만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유학의 설과 합치한다. 그러므로 합치하는 부분에 대한 후세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만 바로 잡으면, 유학자들이 그것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도덕경』에 대한 주해서를 『노자』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정로(訂老)]라 명명한 것이다.

홍석주는 ‘어진 사람[仁者]’인 노자가 ‘어진 덕을 베푸는 방법[仁術]’을 논한 책이 『도덕경』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유가의 성인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자가 말한 자애, 검약, 겸손하게 낮춤, 다투지 않음과 같은 것은 성인께서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다.³⁴⁾

왕이 전복되는 까닭은 항상 교만하게 행동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것에서 대부분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또 허심탄회함과 겸손과 검약의 의미로만 말하였다. (39장)부터 아래로 여덟 장은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루어 펼쳤으니, 여기의 말은 실로 노자가 세상에 사용하고 사물에 대응하는 종지이다.³⁵⁾

만약 노자의 이론을 따른다면 천하에서 전쟁에 의한 피해가 영원히 사라져 주초의 1800여 개 국, 가들이 지금까지도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니, 또한 어진 사람의 말이라 할 수 있다.³⁶⁾

33) 홍석주, 『訂老』 4장: “或曰, 老子所謂象帝之先者, 得無與西洋天主之說類與.”

34) 홍석주, 『訂老』 1장: “若老子之言慈儉卑謙而不爭, 則聖人亦不能易焉.”

35) 홍석주, 『訂老』 39장: “侯王之所以歷, 恒多由驕溢, 故又專言冲退謙約之意. 自此以下八章, 又皆因此而推暢之, 茲實老子用世應物之宗旨也.”

36) 홍석주, 『訂老』 61장: “使從老子之論, 則天下將永無兵革之毒, 千八百國, 雖皆

천하를 다스리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단지 전쟁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뿐이니, 노자가 오직 이 두 가지 일에 대해 근심하였다. 그런데도 『도덕경』이 어진 덕을 베푸는 방법에 관한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³⁷⁾

홍석주가 볼 때, 노자가 말한 ‘자(慈)’, ‘검(儉)’, ‘비(俾)’, ‘겸(謙)’ 그리고 ‘부쟁(不爭)’은 성인조차 바꿀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는 특히 노자가 말한 ‘겸손(謙)’과 ‘부쟁’을 주목한다. 그가 볼 때, 『도덕경』의 70%는 ‘겸손’과 관계된 것이고³⁸⁾, 『도덕경』 오천 글자의 기본이고 천하만사의 으뜸이다³⁹⁾. 역사적으로 왕의 전복은 교만함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노자가 말한 ‘겸손’을 견지했다면 전복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자가 말한 ‘부쟁’을 견지했다면 살육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노자가 말한 ‘부쟁’의 도리를 주나라 초기의 사람들이 따랐다면, 주나라 예약제도의 붕괴 즉 춘추전국이라는 난세가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전쟁도 없고 형벌의 사용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노자를 인자(仁者)로, 『노자』를 인술지서(仁術之書)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홍석주는 『노자』가 개인 생명만 중시하고 세상을 등한시하는 ‘중생경세(重生輕世)’의 전적으로 보지 않고, 위기(爲己)와 치인(治人)에 유익한 실제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노자의 글은 거의 모두 욕심을 줄임으로써 신명을 기르고 다투지 않음으로써 세상에 순응하며, 다툼을 줄이고 살육을 없앴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至今存, 可也. 亦可謂仁人之言矣.”

37) 홍석주, 『訂老』 74장: “爲天下而不免於殺人者, 唯兵與刑, 故老氏特於是二者拳拳焉. 謂其書非仁術, 吾不信也.”

38) 홍석주, 『訂老』 78장: “老氏之書八十一章, 言謙下柔弱者, 居其十七, 蓋其用專在是也.”

39) 홍석주, 『訂老』 70장: “老子之言, 雖若高遠微妙者, 其實不過二端, 欲使人內清靜而寡慾, 外謙柔以下人而已, 此豈有難知且難行哉. 蓋此二端者, 是五千言之宗, 而天下萬事之君也.”

대해 말했으니, 그 개략이 이상과 같을 뿐이다.⁴⁰⁾

(10장)의 앞 세 구절은 기를 수련하고 섭생하는 것의 비결을 말했고, 뒤 세 구절은 세상과 사물에 대처하는 도를 말했으니, 대개 『도덕경』의 핵심이다.⁴¹⁾

(81장)에서 앞의 한 구절은 ‘참됨에 힘쓰고’와 ‘돌이켜 단속함’에 대해 설명하고, 뒤의 한 구절은 사물을 이롭게 하고 알맞은 때를 따름에 대해 설명했으니, 자신과 남을 다스리는 요지가 대략 구비되었다.⁴²⁾

홍석주가 볼 때, 『도덕경』은 ‘양신(養神), ‘연기(煉氣), ‘섭생(攝生), ‘무실(務實), ‘반약(反約)과 ‘수세(酬世), ‘응세(應世), ‘치민(治民), ‘이물(利物), ‘순시(順時) 등을 주요 요지로 하는 ‘위기치인(爲己治人)의 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궁극적 실재인 ‘도’의 운동법칙과 작용특징 및 생화(生化)과정을 언급한 『도덕경』 40장을 ‘위기치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

반이란 상반되는 것이다.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 상반되게 하는 것이고, 유에서 무로 되돌아가는 것도 상반되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어두움과 밝음, 추움과 더움이 서로 번갈아들고, 사람에게는 움직임과 고요함, 굽힘과 펴, 막힘과 통함, 없어짐과 생김이 순환하는 것처럼 서로 원인이 되는 것은 모두 상반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도 아닌 것이 없다. 도는 하나일 뿐이고, 도의 본체는 무위일 뿐이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온갖 것이 되면서 유행하는 것들은 서로를 변화하게 하고 짝하여 대하는 것들은 서로를 드러나게 하니, 어디를 가도 상반되지 않는 것이 없다. (중략) 이 때문에 지극히 높은 것이 도이지만 이 도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지극히 큰 것이 도이지만 이 도를 체득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 도는 지극히 강건한 것으로 본체를 삼고 지극히 유약한 것으로 작용을 삼으니, 이 또한 상반되게 하는 것이다. (중략) 유는 무에서 나온다는 것도 상반되게 한

40) 홍석주, 『訂老』 머리글: “老氏書, 率皆言寡慾以養神, 不爭以應世, 省事去殺以治民, 其大要如是而已.”

41) 홍석주, 『訂老』 10장: “此章上三句, 言煉氣攝生之要, 下三節, 言酬世應物之宜, 蓋老氏一篇之關鍵也.”

42) 홍석주, 『訂老』 81장: “此章前一節, 言務實反約, 後一節, 言利物順時, 爲己治人之要, 大畧備矣.”

다는 의미이다. 노자가 이런 말은 한 것은 대개 사람들이 욕심을 없앴으로써 자신을 다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천하를 다스려, 그로 인해 생기는 명예와 공업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⁴³⁾

일반적으로 『도덕경』에서 40장은 1장, 42장과 함께 노자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대표하는 장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홍석주는 노자가 이 장을 통해 ‘반(反)’의 논리를 보여줌으로써, ‘수기치인’에서 ‘무욕(無欲)’, ‘무위(無爲)’, 선(善)과 공(功)의 ‘불유(不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유생어무(有生於無)’를 궁극적 실재인 ‘도’와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상반(有無相反)’의 의미로만 이해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해석방법은 ‘체용불이(體用不二)’ 혹은 ‘체용본일(體用本一)’ 등 성리학적 관점에서 ‘무’와 ‘유’를 ‘도체(道體)’와 ‘도용(道用)’으로 본 박세당과 다르다.⁴⁴⁾ 이는 홍석주가 송유들의 ‘성명이기의 실’이라는 형이상학적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학문의 실제성을 강조하는 본원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그의 실용주의적 학문관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에 있어, ‘도가’ ‘무’인지 ‘유’인지 또는 ‘무유불이(無有不二)’ 혹은 ‘무유본일(無有本一)’적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실제성이 없는 형이상학적 논의는 공리공담일 뿐 실행을 중시하는 참된 학문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와 ‘유’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대신, ‘위기치인’의 실행에서 실제적 가치를 갖는 ‘도’의 운동법칙인 ‘반’에 주목해서, 『도덕경』 40장의 ‘무’와 ‘유’를 주해했던 것이다.

43) 홍석주, 『訂老』 40장: “反者, 言相反也. 由無而有, 反也. 由有而復於無, 亦反也. 在天, 則昏明寒暑之相代, 在人, 則動靜屈伸否泰消息之相因, 如循環者, 皆反也. 是皆無非道也. 夫道一而已, 道之本體, 無爲而已. 乃其動也, 則自一而二, 自二而萬, 流行者相變, 對待者相形, 無往而非相反者. (중략) 是以, 至尊者道也, 而有是道者, 必自下, 至大者道也, 而體是道者, 必自小, 道, 以至健爲體, 而以至弱爲用, 是亦反也. (중략) 有生於無, 亦相反之意. 老子言此, 蓋教人無欲以治身, 無爲以治天下, 不有其善, 不有其功也.”

44) 金兌勇, 「論朝鮮儒者朴世堂의 『新註道德經』」, 四川大學道教與宗教文化研究所, 『宗教學研究』 116期, 2017, pp.23-25.

홍석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자의 ‘도’가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형성하고 있는 공자(孔子)나 자사(子思)는 물론 주돈이(周敦頤)나 정주(程朱)의 ‘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물은 진실로 어느 것 하나 이 도에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 말미암는 곳은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이른바 하나란 알 수 없으니, 이것이 『역경』에서 말한 ‘태극’이고, 자사께서 말씀하신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것이고, 주자께서 말씀하신 ‘무극의 진’이며, 정자께서 말씀하신 “공허하고 광망하여 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중략) 저절로 그런 것을 도라고 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것도 도라고 하니, 이 두 가지는 애당초 다른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한 도도 공자와 자사께서 말씀하신 도와 애당초 다른 것이 아니다.⁴⁵⁾

내가 생각하기에 (54장)의 의미는 『대학』과 부합한다. 후세에 도가로 일컬어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사롭게 할 줄만 알아서 천하와 국가를 위할 수 없었으며, 예로 도모하고 공으로 이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유학에 의탁하는 자는 또 항상 다스리는 도만 말하고 자신에 근본을 두지 않았으니, 이런 것은 모두 노자가 버렸던 것들이다.⁴⁶⁾

내가 생각하기에 『노자』라는 책은 겸손함과 유약함의 의미에 대해 말한 것이 아주 많으니, 요 임금이 매사에 진실로 공경하고 잘 양보하는 것, 순 임금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조금도 거짓이 없으며 성실한 것, 문왕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우며 삼가는 것, 공자가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겸소한 것은 모두 그 법도가 (노자와) 한가지이다.⁴⁷⁾

45) 홍석주, 『訂老』 1장: “萬物固莫不由是道, 然其所由出則一而已. 而所謂一者, 不可見, 此易所謂太極, 子思所謂上天之載無聲無臭, 周子所謂無極之眞, 程子所謂沖漠無朕也. (중략) 夫自然之謂道, 當行之亦謂道, 是二者, 未始有異道也. 故老子之所謂道, 與孔子子思之所謂道, 亦未始異也.”

46) 홍석주, 『訂老』 54장: “愚謂此章之指, 與大學合. 後世之號爲道家者, 知私其身而不可以爲天下國家, 其以禮謀功利, 而自托於儒者, 又恒談治道而不本諸身, 是皆老氏之所棄也.”

47) 홍석주, 『訂老』 66장: “愚謂老子一書言謙下柔弱意最多, 堯之允恭克讓, 舜之溫恭允塞, 文王之徽柔小心, 孔子之溫良恭儉讓, 皆一揆也.”

홍석주가 볼 때, 노자의 ‘도’는 공자와 자사 그리고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도’는 ‘자연(自然)’과 ‘당행(當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공자와 자사는 ‘자연’의 도를 말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도 가볍게도 말하지 않았다⁴⁸⁾. 그러므로 공자와 자사는 주로 ‘당행’의 도를 강조하여 사람들이 인륜(人倫)과 일용(日用)에 힘쓰게 하였다. 반면 노자는 ‘자연’의 도를 지나치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 설법 또한 황홀하여, 후세의 거짓말로 속이고 언행이 허황하여 믿을 수 없는 자들이 그것에 가탁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므로 홍석주는 비록 노자의 ‘도’와 성현의 ‘도’가 다르지 않지만 성현의 경전을 통해 도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⁴⁹⁾. 또한 그는 『도덕경』 54장이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하는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그 논리 구조가 동일하고, 노자가 말한 겸손과 유약의 법도는 요, 순, 문왕, 공자가 말한 성실, 공손, 온순, 어짊 등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즉 노자의 사상은 이른바 ‘도통’의 주요 인물인 요, 순, 문왕, 공자 등의 사상과 근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홍석주는 노자의 말이 한쪽으로 치우쳐 후세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이단으로 흘러가게 하는 문제는 있지만⁵⁰⁾, 기본적으로 노자와 유학의 기본 사상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홍석주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등을 비판하

48) 홍석주, 『訂老』 1장: “孔子子思, 亦何嘗不語自然哉. 其言曰形而上者, 謂之道. 又曰, 無思也, 無爲也, 不疾而速, 不行而至. 又曰, 視之而弗見, 聽之而不聞, 體物而不可遺. 夫如是而已.”

49) 홍석주, 『訂老』 1장: “老子之語道也, 推而極之於自然之妙, 其爲說, 又恒若恍惚而不可測, 此所以一再轉而爲譎詭荒唐者所假托也.”

50) 홍석주, 『訂老』 11장: “老子固未嘗廢有也, 而其意則已偏矣. 及其流也, 夢幻天地, 糠粃品物, 而天下始大亂, 不可禁矣.”, 21장: “愚按惚恍窈冥者, 中庸所謂視之而不可見, 聽之而不可聞也, 其精甚眞, 其中有信者, 誠之不可揜也. 以閱衆甫者, 體物而不可遺也. 此章與中庸, 實相表裏. 特其辭鼓舞捭闔, 異於孔氏之平正, 茲所以一轉而流於異端也.”

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쥬'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은 온전한 덕이니, 사람에게서는 본심의 덕으로서 모든 선의 으뜸이다. 그런데 세상이 쇠퇴하고 학술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항상 하잘것없는 작은 은혜를 어쥬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노자가 말하는 어쥬은 당시 세속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명명한 것이다.⁵¹⁾

총괄하여 말하면 '도'라 하고 나누어서 말하면 '어쥬'와 '의로움'이라 하니, 두 가지의 의미가 아니다. 노자는 세상에서 은혜를 파는 것을 어쥬으로 여기고 의협심을 자랑하는 것을 의로움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노자가) 성인께서 말씀하신 어쥬와 의로움을 아울러 비판하였다. (노자가 말한) 그 뜻은 격분해서 말한 것일 뿐이니, 그 말을 가르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⁵²⁾

노자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어쥬와 의로움과 예를 말하면서 말단만 쫓고 참됨을 망각하는 데에 염증이 나서 마침내 어쥬와 의로움과 예까지 아울러 비판했다.⁵³⁾

노자는 주대 말기에 문식이 널리 퍼지고 지모를 숭상하여 상하 모두 서로 허위로 대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울분을 참지 못해 이런 글을 남겼으니, 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자는 오직 묵묵히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⁵⁴⁾

노자가 『도덕경』에서 '인의예지' 등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홍석주는 노자가 그것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고 그것의 말단만 좇는 세태에 격분하여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볼 때, 춘추시대 말기에 태어난 노자는 강한 힘을 뿜내며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천하를

51) 홍석주, 『訂老』 5장: “仁者, 天地生物之全德, 在人則本心之德, 而萬善之長也. 世衰學廢, 人恒以煦煦小惠爲仁, 老子之所謂仁, 皆因當時世俗之所稱而名之也.”

52) 홍석주, 『訂老』 18장: “統而言之則曰道, 分而言之則曰仁義, 無二致也. 老子病世之沽惠以爲仁, 矜俠以爲義也. 故並與聖人之言仁義也而抑之, 其意則有激云爾, 其言則不可以訓矣.”

53) 홍석주, 『訂老』 38장: “老子嫉夫當世之言仁義禮者之逐其末而忘其眞也, 遂并與仁義禮而詆之.”

54) 홍석주, 『訂老』 65장: “老子見衰周之世, 彌文尙智, 而上下皆以僞相蒙, 故有激而爲是言, 善讀者, 唯默識其意可也.”

재난에 빠지게 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꼈다⁵⁵⁾. 노자가 살았던 이러한 시대에 ‘인(仁)’은 은혜를 파는 어둠이었을 뿐이고, ‘의(義)’는 의협심을 자랑하는 의로움이었을 뿐이며, ‘예(禮)’는 걸만 그럴 듯하게 하는 꾸밈이었을 뿐이고⁵⁶⁾, ‘지(智)’는 술수를 부리고 남을 속이는 꾀일 뿐이었다. 다만 노자가 격분하여 성인이 말한 ‘인의예지’를 함께 비판한 잘못은 있지만 그 뜻을 잘 헤아려 살펴야 한다. 또한 노자가 말한 ‘무위’는 바로 태고(太古)의 ‘무위’와 같고, (삼황)오제와 하나라 우왕, 은나라 탕왕, 주나라 문왕을 거치면서 ‘질(質)’과 ‘문(文)’이 서로 변해 나날이 ‘유위(有爲)’로 나아가다 결국 주나라 말기의 ‘문’에 치우치게 된 풍속을 바로잡고자 제출된 것이다⁵⁷⁾. 그러므로 노자의 말에 가탁해 ‘인의예지’ 등의 무용(無用)을 주장하거나, 그것이 유학의 말과 다르다하여 이단이라 공격만 해서는 안 된다. 홍석주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자가 『도덕경』 16장에서 말한 ‘치허극(致虛極), 수정독(守靜篤)’을 성리학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공부방법이라 말한다.

본문의 ‘치’는 지극함을 극진히 하는 것이고, ‘독’은 열심히 힘쓰는 것이니, 우리 유학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내면을 곧게 하여,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 (마음을) 기른다는 것이 이것이다. (중략) 고요해지고 비워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게 되며, 움직임이 바르게 되면 공평해지고, 공평해지면 두루 미친다. 그러니 이른바 “마음 비우기를 극진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기를 돈독하게 하라”는 두 구절은 진실로 우리 유학에서 마땅히 한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⁵⁸⁾

55) 홍석주, 『訂老』 36장: “愚謂老子生春秋之季, 厭於強梁爭奪之禍天下也. 故其爲言皆忠厚謙卑恬澹而寡欲, 此章所論亦有激於強奪者而云爾, 豈眞欲以陰謀勝人哉.”

56) 홍석주, 『訂老』 38장: “煦煦爲仁, 而求人之親己, 矜儻爲義, 而欲人之服於我. (중략) 老子嫉夫當世之言仁義禮者之逐其末而忘其眞也. (중략) 是固皆文之飾乎外者也. 飾固近乎僞, 僞固將趨于薄, 而仍之以相蒙, 固大亂之道也.”

57) 홍석주, 『訂老』 14장: “所謂古之道者, 無爲而已矣. (중략) 儒者之道, 未嘗不師古也. 然五帝三王, 質文相變, 大抵日趨於有爲矣. 老氏欲以太古之無爲, 御衰周靡文之俗.”

58) 홍석주, 『訂老』 16장: “致極其至也. 篤用力深也. 在吾儒則戒懼直內, 以養之於至靜之中者是也. (중략)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夫所謂致虛極守靜篤兩言者, 固吾儒所宜單心而服膺也.”

홍석주는 박학적 개방적 실학정신을 발휘하여 유학자들이 이단의 책으로 간주한 『도덕경』을 탐독(耽讀)하였고, 훈고학적 실증정신에 입각해 『도덕경』을 이단의 책으로 간주한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노자와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 수신을 근본으로 하는 치국, 겸손과 유약 등의 중시가 동일함을 주장하고, 『도덕경』에서 노자가 비판한 유학의 가치 관념이 변질(變質)적 허위(虛僞)적 춘추시대의 가치 관념일 뿐 유학이 중시하는 가치 관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노자와 『도덕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홍석주는 수신과 치국, 인륜과 일용의 관점에서 『도덕경』을 주해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노자사상에서 실제적 효용성을 갖는 것을 발굴하고, 이를 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 이로 볼 때, 『정로』는 홍석주 자신의 ‘개방(開方)’, ‘박학(博學)’, ‘실제(實際)’, ‘실증(實證)’을 중요 가치로 하는 실용주의적 학문관이 잘 반영된 저작이라 볼 수 있다.

IV. 나오는 말

개항을 전후한 19세기 중엽 이후의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시작되었다.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부패는 극에 다다랐다. 삼정(三政)이 문란해지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민란(民亂)이 잇달아 일어나, 조선의 통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동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던 조선의 정치 체제에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서양 함선의 출현과 그들의 통상(通商) 요구가 그것이었다. 이러한 내부적인 모순과 서구 세력의 도전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의 지식층은 1870년대 개항을 전후해 몇 가지 서로 다른 대응 논리를 내세웠다. 첫째, 서구 열강의 도전을 제국주의적 침략이라 규정하여 그들의 문명 일체를 배격하고, 유교적 문물의 계승을 통하여 민족 보전의 길을 찾으려 한 척사위정(斥邪衛正)사상이다. 둘째, 서구 문

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고자 한 개화(開化)사상이다. 이는 전면적 수용을 주장한 ‘변법(變法)적 개화사상’과 부분적 수용을 주장한 ‘동도서기(同道西器)적 개화사상’으로 나뉜다. 셋째, 전통적 민간신앙에 기반하여, 안으로는 학정(虐政)에 시달리는 농민 대중을 살리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을 물리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이념을 구현하려 한 동학(東學)사상이다.⁵⁹⁾

이 가운데 홍석주의 학문태도와 연관하여 조금 더 살펴볼 사상은 ‘척사위정’과 ‘동도서기적 개화사상’이다. 왜냐하면, 홍석주가 속했던 19세기 중기 이전의 지식인그룹이 그 후에 척사위정론자나 ‘동도서기’적 개화사상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초기 척사위정론자들이 말하는 ‘정’은 정학(正學)인 성리학과 조선의 문화를 의미하고, 배척의 대상인 ‘사’는 이러한 조선의 성리학과 문화와는 다른 이질적인 사상, 문화 체계를 의미한다. 즉 ‘멸륜난상(滅倫亂常)의 서학(西學)’을 물리치고 ‘공맹(孔孟)의 윤상정도(倫常正道)’를 지키자는 것이다. 인륜을 매우 중시했다는 측면에서 홍석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석주가 주자성리학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이기론에서 벗어나 본원유학의 실제성을 회복하려고 한 것과 달리, 척사위정론자들은 주자의 ‘이기결시이불설(理氣決是二物說)’을 가치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기’의 계서(階序)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를 지향하면 정(正) 즉 유교문화가 되며, 이 유교문화와 다른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邪)가 되는 것이다.⁶⁰⁾ 물론 자료의 부족으로 홍석주의 서양문화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그의 노자관에 비추어 볼 때, 그가 19세기 중기 이후에 활동했다면 척사위정론자들과 같은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동도서기론자들이 말하는 ‘동도’란 삼강(三綱), 오상(五常), 효제충신(孝悌忠信)이고, ‘서기’란 예악(禮樂), 형정(刑政), 복식(服飾), 기물(器物)이

59)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심산, 2010, pp.376-376.

60)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심산, 2010, pp.379-382.

다. 그들은 ‘도’가 바뀔 수 없는 것임에 반하여, ‘기’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물질적 차원에서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정신적 차원에서는 ‘동도’를 지키자, 말하자면 동양의 전통적인 도덕 규범을 준수하면서 이것을 지키려는 내수(內修)의 방편으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것이다.⁶¹⁾ 이처럼 그들은 성리학의 의리를 지키면서도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근대 문물의 도입에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성리학의 의리를 근본으로 하지만, 개방적 실용적 태도로써 당시 유학의 비실제성을 비판하고 비유(非儒)의 학문으로 유학을 보완하면서 한국유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했던 홍석주의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홍석주는 노론 낙론계 경화사족의 전통을 전수 받은 정통주자학자이지만, 주자성리학을 묵수하고 계승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전환시대의 현실상황과 학술조류를 외면하지 않고, 본원유학의 실제성을 회복하여 그것을 정면으로 대응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는 관습적 학술태도에서 벗어나, 노자와 『도덕경』을 실증적으로 다시 논구하면서 그것에서 발견한 유의미한 이론과 관념에 대해 적극적 수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홍석주의 학술태도가 전환기 지식인의 전형적 혹은 모범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개방적, 실제적, 실증적 정신에 입각하여 전통적, 관습적 기성 이론과 관념을 재검토하여,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술사조를 형성하려 한 홍석주의 학술태도는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3일에 투고되어, 2017년 10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7년 11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1월 6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61)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심산, 2010, pp.410-412.

<참고문헌>

- 홍석주, 『연천집』, 한국문집총간(<https://www.krpia.co.kr>).
- 홍석주지음, 김학목옮김, 『홍석주의 노자』, 서울: 예문서원, 2001.
- 홍석주원저, 리상용역주, 『역주홍씨독서록』, 성남: 아세아문화사, 2012.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통의 변용과 근대개혁』, 서울: 태학사, 2004.
- 윤사순, 『실학의 철학적 특성』, 서울: 나남, 2008.
-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하, 서울: 심산, 2006.
-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심산, 2010.
- 金兌勇, 「論朝鮮儒者朴世堂의 『新註道德經』」, 四川大學道教與宗教文化研究所, 『宗教學研究』 116期, 2017.
- 김문식, 「홍석주의 경학사상 연구」, 규장각한국학연구소, 『규장각』 16권, 1994.
- 김학목, 「『정로』에 나타난 연천 홍석주의 사상」,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23권, 2000.
- 김학목, 「연천 홍석주가 『도덕경』을 주석한 목적」,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60권, 2003.
- 김학목, 「18-19세기의 조선조 『도덕경』 주석 고찰」, 한서대학교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26권, 2013.
- 리상용, 「홍석주의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 한국서지학회, 『서지학연구』 16권, 1998.
- 송항룡·조민환, 「조선조 노장주석서 연구」,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26·27권, 2007.
- 조성산, 「19세기 조선의 지식인 형성-균열과 가능성」,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겨울, 2016.
- 최석기, 「연천 홍석주의 학문성향과 『대학』 해석의 특징」,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 15권, 2006.

Abstract

*A Study on 19th century Korea Confucian Hong-Seokjoo's the view of Laozi
- based on practical view of learning / Kim, Taeyong*

Hong-Seokjoo is an orthodox Confucian in 18-19th century of Korea. However, He criticizes the Neo-Confucian who advocates theories of Li(理), Qi(氣), Nature(性) and Fate(命), pointing out their emptiness, false and ambiguity. He thinks that their learning tendencies lacking practice of the principle of righteousness they insisted. Therefore, he efforts to resurrect of the primitive Confucianism. He thinks that the primitive Confucianism having lots of practical principles, especially the principle of cultivating oneself and governing a country. In 『Jungro(訂老)』, He says that Laozi is not heresy, Laozi's Dao(道) is the same thing of Kongzi's one, and Laozi's book is the book of cultivating oneself and governing a country. He thinks that Laozi didn't deny true 'Benevolence(仁), Righteousness(義), Propriety(禮), Wisdom(智)', but denied false one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He says that Laozi is a benevolent person(仁者) and 『Laozi』 is a book about the theory of governing with benevolence(仁術之書). He rates highly the principle of 'Benevolence(慈), Frugality(儉), Modesty(謙), Warless(不爭)' in 『Laozi』. He says that if people had these principles, there were no division in ancient china. Especially, he recommends all Confucian to practice 'Effect vacuity to the extreme, Keep stillness whole(致虛極, 守靜篤)' in 『Laozi』 for preserving heart. He has an open, practical and empirical attitude towards learning. He annotates 『Laozi』 regarded a heresy book, refutes customary theory about Laozi and 『Laozi』, and recommends to accept the practical theory of Laozi and 『Laozi』. In view of these facts, 『Jungro』 reflects well his practical view of learning.

Key words: Hong-Seokjoo, 『Jungro』, practical view of learning, Laozi, cultivating oneself and governing a country.